

고창여고 2022-26호



자유·진리·사랑

가 정 통 신 문

교장실 : 560-3601

교무실 : 560-3600

담당자 : 560-3678

제 목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안내문 “더불어 성장하는 통합교육”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통합교육의 밑거름이 되어 학생들이 더불어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I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또래 학생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동시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의 유형에는 일반학급에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완전통합,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시간제 통합이 있습니다.

II 통합교육의 효과

1. 특수교육대상학생

- ▶ 다양한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 학령기부터 통합된 환경에서 더불어 생활함으로써 성장하여 지역사회에서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2. 비장애 학생

- ▶ 서로 다른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여 자아 중심에서 공동체로 세계관을 넓힐 수 있습니다.

III 장애학생의 인권

- ▶ 장애 유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문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 ▶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장애학생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절, 알아둡시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바른 언어 사용

-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장애인'이나 '도움반'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 반보 앞에서 걷기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동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 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

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 도움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



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



2022. 4. 20.

고창여자고등학교장(직인생략)